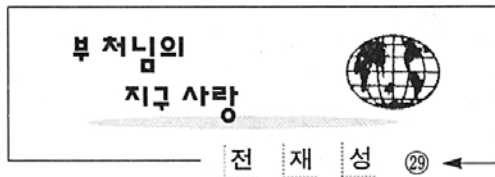


# 생명체 지탱시키는 生氣 역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바람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의 하늘)



풍(小風), 대풍(大風)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육신에 들어오면 작용하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상향풍(上向風), 하향풍(下向風), 하복주풍(下腹注風), 지지수류풍(肢肢隨流風), 출식풍(出息風), 입식풍(入息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 보아도 바람이 우리

고, 지지수류풍에 이상이 있으면 류마티스나 관절염을 앓기 쉽고, 출식풍과 입식풍에 이상이 생기면 육체적 생명에 이상이 생긴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의 바람이 각종 공해로 인해 오염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 생명체내를 중흥무진하는 위와 같은 바

이하고 있다.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매년 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도 다양해지고 있어 건강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해지고 있다. 아황산가스는 기관지염, 천식, 식물 잎의 피해, 건물·동상의 부식을 일으키고, 먼지는 시력장애, 폐질환,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고, 오존은 폐기능 손상, 식물 성장점의 파괴, 고무의 균열을 유발하고, 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장애, 금속의 부식, 식물생육의 장애, 갈색연무를 발생시킨다. 일산화탄소는 두통, 현기증, 구역질 및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공기중의 중금속은 조절기능의 장애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며, 탄화수소는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식물의 비정상적인 성장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물론 이러한 바람의 오염은 무엇보다도 불의 오염, 즉 에너지오염에서

## 바람

바람은 옛부터 생명체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으로 여겨졌다. 인도에서는 유명한 우파니샤드의 밤이일여(梵我一如)의 사상-관객적 초월과 주관적 초월이 같다-의 중심에는 진아(眞我)가 놓여 있는데 그 본래적 의미는 바람을 호흡하는 존재 즉 아트만을

지시한다. 이렇듯 바람은 생명체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이 바람을 호흡하지 않고도 땅, 물, 불과는 달리 한 순간도 생명체를 보존할 수 없다. 자연의 바람은 이렇듯 생명체를 지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생기(生氣)라고 불리워 왔다. 부처님은 초기경전에서 자연의 바람을 사방풍(四方風), 유진풍(有塵風), 무진풍(無塵風), 소

## 체내바람 불순하면 질병·생장장애 초래

의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한가를 알 수 있다. 자연의 바람이 청정하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상황중에 이상이 생기면 상기되거나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하향풍에 이상이 생기면 배설기능이 손상되기 쉽고, 하복주풍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기능에 장애받기 쉽

람인들 청정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대기오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내의 바람의 오염을 수반한다는 것에 대대론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잘

유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산업체 및 화력발전소 그리고 가정용 난방,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러한 대기오염은 산성비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옮겨가고 또한 지구 생태계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국불교대 교수)

## '95 신행 캠페인

###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학업성적에 반영하고, 기업체에서도 자원봉사 경력을 신입사원을 뽑는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에 대해 반갑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비심이 부족하고 반생명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어 씁쓸하기도 하다.

불교는 자비문제로 불리우듯 생명있는 모든 것을 보전하고 감싸왔다. 모든 것에 불성이 깃들여 있다는 가르침 이전에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자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자원봉사는 자비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내용이다. 불교계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과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이어주는 불교자 자원봉사연합회가 있다. 연합회에는 1천명이 넘는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자기의 처지에 따라 1개월에 하루, 아니면 몇 시간이라도 도움이 필요

### 금주의 주제

### 자원봉사 참여

## 자비 실천하는 구체적 정진

근로·성금후원·모니터활동 등 생활화하길

한 곳에 찾아가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그도 아니면 성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 7월 명동 백범일지 자원광로원 등 14곳에서 1백여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하는 일은 노인들 목욕시키는 일부터 환경정비기 세탁 청소 등 다양하다. 좀 전문적인 직업을 지닌 사람은 언론모니터 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소년소녀가장과 봉사단체에 1천2백여만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지난 8월 국립의료원에서 3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이승준군(홍익사대부고 2년)은 하루하루를 보시 인육 정진의 날이라 이쁘고 자원봉사에 임했다며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새삼스럽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 기회를 자주 가져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서원했다.

아직도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다. 자원봉사연합회 김희진간사는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어떻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경험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자원봉사연합회(723-6258, 6259)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해준뿐 아니라 사전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법회장소 마련됐으면..."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복부하고 있는 군중법입니다. 하지만 법회를 불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는데다 얼마전 마련한 작은 참고는 너무 좁아 부처님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법회를 보겠다고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배울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보니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몇 안 되는 제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럴듯한 법당을 꾸며 법회는 열고 싶고... 어찌해야 할 지 망설임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복자들에게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김일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사서함 100-36호  
제5882부대 본부포대 상병 이경호 (0365)461-0023

## 社 告



## 만해스님 '님의 침묵' 판본전

20일~11월 3일,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과 책방 여시아문이 창간·개관 1년을 맞아 만해 사상 연구회(회장 전보삼)와 함께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판본 총 82종을 전시합니다. 1926년 초판 단행본 시집의 발간 이래 현재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은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영문판도 3종이나 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문학 그리고 불교같은 민족애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26년 초판 비록 총 82점...영인본 판매

- 전 시 일 정: 10월 20일~11월 3일
- 개 막 식: 10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 책방 여시아문(본사 1층)
- 기타 전시물: 만해스님 영정, 만해시비 사진 액자(5점), <님의 침묵> 전문, 1926년 초간본 영인본 40권 한정판

현대불교신문사

## 신행수첩

### 마음의 양식 채워줄 법문 부산보현불교대 고승대법회

가을을 맞아 불자들의 정서 함양과 신심고취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불자들에게 풍성한 마음의 지식을 가득 채워줄수 있다면 금년 가을은 어느 해보다 뜻깊은 것이다.

부산보현불교대학(학장 보현)은 11월17일부터 26일까지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21인 고승대덕스님들을 초청 대법회를 개최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를 비롯 육바라밀, 팔정도, 심성설, 선 수행 등 교리에 대한 다양한 법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051)253-0681

### 등산대회·백일장등 행사 자재암 첫 소요산 단풍제

소요산은 경기도의 소금강으로 불릴만큼 아름다운 명산으로 대지연의 수림과 폭포수의 비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철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일주문, 속

리교를 지나 하백운대부터 상백운대에 이르는 절경을 가로 지른 등산로가 가히 일품이다. 처음 계곡을 따라 오르면 원효대사가 수도굴에 도를 얻지 못해 투신자살하려던 순간 도를 얻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원효대가 청량폭포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를 지나 작은 다리를 몇 개 건너면 백운암과 자재암이 육류폭포의 신비함과 함께 마주보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동두천 자재암(주지 선광스님)이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제1회 소요산 단풍축제'를 열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등산대회, 주부백일장, 사진전시회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소요산은 승용차로 의정부에서 동두천 시가지를 벗어나 10분정도 거리고, 상봉터미널과 수유리, 의정부에서 직행 버스가 자주 있다. (0374)33-6296

### 단풍보다 더 고운 불심

신행연, 운문사 사리암 순례 불자들의 가을은 어디서 절

◇536m 높이의 소요산은 산능선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듯하며, 경기 소금강이라 불릴만큼 경승지다.



정을 이룰까. 깊어가는 가을을 일렁이는 불심으로 마음의 단풍을 가장 고운 빛깔로 물들여 보자.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8일 경주 토함산 석굴암과 청도 운문사, 사리암으로 이어지는 불교문화여행길에 오른다. 완벽한 조형미와 그 심장함 속에 전해오는 석굴암 부처님의 무언의 가르침을 가슴깊이 간직할 채 청도 운문사에 도

착할 때쯤이면 어느새 마음은 단풍빛보다 더 고운 빛을 받게 될 것이다.

비구니강원으로 유명한 운문사는 대웅보전, 삼층석탑등을 비롯 많은 보물급 문화재들이 남아있어 운문사의 깊은 역사를 설명해 준다.

또한 운문사 사리암은 옛부터 전국제일의 독성기도처로 꼽히는 곳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영험한 도량이다. (02)587-6613

## 생활 속의 불교 ④

#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망발 때문에

인체를 소우주라고 한다. 오장육부의 돌아가는 모습이 우주의 운행 원리와 비슷하고 장기마다 수십억 개의 세포가 어우러지는 모습도 지구 같은 혹성을 닮았기 때문이다.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인체 내엔 수십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세포 안에 다시 독립된 생명체(미생물)가 있고 부위 부위마다 세균이 함께 산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직과 조직, 세포와 세포 간에 통신하는 기능, 유통 기능, 생산·소비 기능 등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소산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인체를 일컬어 중생의 국토라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닌 셈이다.

수많은 생명체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어울려 돌아가는 모습은 지구 속에서, 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뒤섞여 사는 방식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내 몸이라 해도 이름만 '내 몸'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십억, 수십조 개의 중생이 우글거리는 공동체 사회인 것이다.

세상도 인체도 우주도 모두가 공동체이다. 개개인이 따로 따로 사는 게 아니며 세포나 장기가 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며 혹성들이 제각기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의지하며 서로 주고받는 질서 아래서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한 집 식구요 한 배를 타고 있는 승객이다. 걸 모습은 비록 다르고 각각인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근본을 모를 때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자의 서원은 이를 세상살이에 대입하면 해탈의 도를 닦아 보살행을 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를 인체에 대입하면 상구보리-내 몸을 팔고 다니는 근본을 아는 것이고, 하화중생-그림으로써 내 육신



속의 수십조 세포를 몽땅 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인체와 세상과 우주가 공생·공공·공체의 섭리 위에 존재할진대 '나 하나 잘 되면 그뿐'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반(反)우주적, 반 인간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상 생활 중에 좀처럼 공생·공공·공체의 섭리를 자각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을 자각하기는커녕 그 섭리를 '적극적으로 깨트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서 그런 삶을 유능한 삶, 보람 있는 삶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알게 모르게 짓는 업이 수미산 같다 한들 틀린 말이라 하겠는가.

동양적 사고의 뿌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끼리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생 관계에 두어진다. 반면 서양적 사고의 뿌리에는 소위 적자생존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능력 있는 존재만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세상을 무한대의 싸움판으로 볼 때나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인체 내에서 그 많은 생명체들은 적자생존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상생공영의 길을 따른다. 그것이 섭리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장육부가 적자생존식으로 기능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종잡을 수 없이 어지러운 세간사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관계는 적자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생존의 관계이다. 함께 가는 길, 함께 사는 길만이 제 길이요 바른 길이다. 부처님께서 누구도 강조하신 말씀이다.

협찬: 김동성·지애령 김재환·김영환